

시놉시스

21세기,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한 지금. 변소 푸는 일을 하는 주인공, 시대에 역행하는 듯하다. 코끼리 똥을 푸면 시급 만원을 준다는 제안... 그는 코끼리 똥을 푸러 떠난다. 코끼리 똥을 푸는 주인공, 배에 이상 신호를 느낀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서둘러 나가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주인공. 그때 나타난 코끼리 한 마리, 코로 그의 손을 쳐서 열쇠를 똥통 속으로 빠뜨린다. 청소도구를 사용해서 열쇠를 꺼내려하는 주인공, 오히려 열쇠는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그의 배는 점점 더 아파오고, 그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려고 한다. 손을 집어넣는 주인공, 그의 앞에 불결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코끼리 한 마리. 무엇인가 잘못됨을 느낀 주인공, 결국 바지를 내리고 코끼리 변소에서 불일을 치른다.

S#1 새벽 / 큰 길

길을 걷는 사람, 주인공. 어깨에 매어 있는 막대기 하나.
막대기 양 끝에 달려 있는 양동이 두 개.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 주인공.

길 한 가운데, 바닥에서 무엇인가 발견하는 주인공.
전단지다.
허리를 숙여 줍는 주인공, 그의 어깨에 매어 있는 두 양동이는 위태롭다.
흘러넘칠 듯, 넘치지 않는다.

전단지에 쓰여 있는 삐뚤삐뚤한 글씨, 어린 아이가 쓴 듯이.
코끼리 똥을 푸면 시급 만원을 준다는 내용.
뚫어지게 쳐다보는 주인공.

뛰어가는 사람 주인공.
흔들리는 두 양동이.
넘치는 내용물.

S#2 대낮 / 코끼리 우리

코끼리 똥을 푸는 주인공.
바닥에 있는 똥을 삽으로 퍼, 양동이에 넣는다.

코끼리들 사이에서.
코끼리의 똥을 푸고 있는 사람, 주인공.

어느 순간, 배가 아픈 주인공.

그리고 그 앞에서 똥을 싸고 있는 코끼리 한 마리.

무엇인가 잘못됨을 느끼는 사람.

서둘러 주머니에서 우리 열쇠를 꺼낸다.
열쇠를 꺼낸 주인공, 웃는다.

그때 나타난 코끼리, 볼 일을 다 본 듯하다.
긴 코를 이용해 남자의 손을 친다.
양동이 속으로 빠지는 열쇠, 경악하는 주인공.

청소도구를 이용해서 꺼내려는 주인공.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지는 열쇠.

점점 더 배가 아파오는 주인공.
무엇인가 결심하는 듯하다.
힘차게 손을 뺏는 주인공.
그 속도 그대로, 양동이 속에 손을 넣는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코끼리 한 마리.
불결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 표정을 보는 사람.
무엇인가 잘못됨을 느끼는 듯하다.

손을 빼는 주인공.
양동이를 쳐다보는 사람, 주인공.
양동이 주위를 걸으며 양동이를 가랑이 사이에 두고 멈춘다.
바지를 내리는 주인공.
허리와 엉덩이를 숙인다.
그의 엉덩이에서 나오는 무언가.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

<코끼리와 같이 춤을, 1고, fin>